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빈곤과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

13:00~17:00 **시민난장** 14:00~15:00 **기념식** (사회 권태호 최경기 / 축하공연 강산에, 이정미) 15:00~17:00 **3·8여성행동 '야단법석'**

합천 KOREA ENVIRONMENT KYORO KOREA ENVIRONMENT AMORE PACIFIC JINRO

[illegible]

 한국여성단체연합

보험의 꽃 교보생명

 고객이 힘들 때 보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험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무디스 신용등급 A2

(국내생보사 유일)

가족 친화 우수 기업 대통령표창 / 사회적 기업 육성 대통령표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고객만족 경영대상 5년 연속 수상



KYOBOLife 교보생명



눈높이(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0년 연속 1위)
1999~2008, 학습지부문

대교
www.edupia.com

내 동생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공부보다 게임을 좋아한다구요?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면 눈높이로 되찾게 해주세요
요즘 아이에게 맞는 요즘 학습법을 여기 다 모았습니다

아이를 바꾸는 **눈높이 학습**

On-Off 통합 학습 눈높이 교재를 통한 오프라인 학습과 에듀피아 교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여 공부 효과를 높여줍니다

Mobile 학습 관리 성적 관리, 교과 지도, 진도 관리에 모바일 학습 도구인 PDA를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합니다

전문 교사 System 수리와 어문 부문으로 교사를 나누어 선발하고 부문별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新교육과정 반영 교육 개정에 따른 학습 환경의 변화에 아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교재와 시스템을 리뉴얼합니다

시작하라, **눈높이**

눈높이 **수학** / 눈높이 **수학** / 사고력수학 눈높이 **국어** / 한글 / 중학국어 / 한자 **창의동서** / **창의동서**
눈높이 **영어** / 슈퍼독 / 일본어 교육·문화 **눈높이 과학** / **눈높이 사회** **폰영어** / **스토리폰영어**

눈높이 무료상담실 080-222-0909

사회공헌활동

눈높이사랑봉사단
무료학습·사회복지시설 지원

Safe kids Korea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스포츠단 운영
눈높이 여자 배드민턴단, 캥거루스 여자축구단

대교문화재단
교육·학습지원 및 장학사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미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5회 한국여성대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01년 전 미국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참정권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UN과 세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한국사회의 보수화 흐름 속에서 맞이하는 3·8 세계여성의날은 그 어느 해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100여년, 국내적으로는 지난 20여년간의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성평등, 평화, 인권이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특권층 위주의 정책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면서 생명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귀막은 외통수 이명박 정부는 참여민주주의는 커녕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내동댕이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실종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되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배제가 강화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는 여성들을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여성부를 폐지하려다 축소해서 존치시킨 후 여성정책은 실종되었고, 보육 및 교육은 국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김으로써 부모부담을 늘리고 있고, 여성인권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적인 감원과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일자리 만들기로 온 나라가 북새통이지만 여성일자리 창출은 생색내기엔 그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에는 여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1년 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여성노동자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한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광장과 지역에서, 직장과 인터넷 공간에서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독선과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일상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여성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다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거, 의료, 교육, 보육 등에서 공공성 확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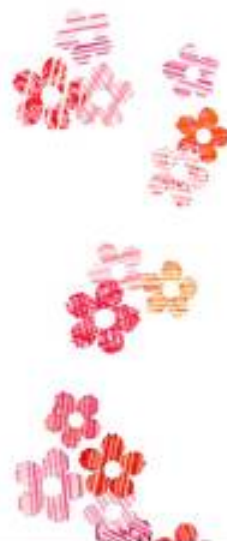
우리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을 거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과 평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 온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

2009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인간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5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드리며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여성의 날'의 존재 자체가 여성이 겪는 불평등과 고통이 존재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흉폭해지는 여자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범죄는 물론 여성을 도구나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적으로 잘못된 시각이 질병처럼 번져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동남아 지역의 아동 성매매, 전쟁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아프리카 소녀들,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온 아프간 여성 인권 문제 등의 수많은 사안들 또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바라봄에 있어 근본적인 존중이 결여되었음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대상으로서 타자화 된 여성으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여성을 존중하는 시각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여성의 날도 남성의 날도 아닌, 인간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백 사람의 한걸음으로 희망을 찾아 갑시다

3월은 여성의 달이다.

가난과 차별을 뚫고 여성들이 봄처럼 자기 존재를 선포한 3월 8일이 있기 때문이다. 101년전부터 해마다 이어진 여성의 외침은 여성만의 외침이 아니다. 생명을 낳고 먹이고 기르는 모성의 외침이며 약하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자는 깨우침의 아우성이다. 2009년, 시장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난폭 우항우 역주행'이 횡행하는 대한민국, 나눔과 평등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희망은 어디 있을까?

희망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희망은 걱정한다고 오지 않는다.

희망은 제발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한발 한발 다가갈 때 희망은 산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의 힘, 여성이 만드는 희망은 이런 것이다.

오늘 여기 3355모여서 88하게 희망을 낳자.

한사람의 백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걸음으로.



오한숙희

‘세계여성의 날’ 유래와 한국의 ‘여성의 날’

오늘날, 세계 각국의 여성들은 매년 3월 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 날의 역사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20세기 초반에 시작한다.

1908년, 미국 맨하탄에서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당에 소속된 여성들이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0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뉴욕의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과 투쟁은 일하는 여성의 존재와 비중을 미국사회에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한편, 1910년 8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여성회의’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후 1911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1922년부터 매년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행이 국제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중반인 일제시대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일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으며, 해방 후 ‘조선부녀총동맹’은 1946년과 1947년 3월 1일부터 8일까지 기념주일을 설정해 행사를 열기도 했다. 1948년 이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어진 후, 1985년 3월 8일에 전국 14개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으며, 1987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창립된 후, 매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2008년까지 제24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1988년부터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최하는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큰잔치’가 열렸으며, 한국노총은 1996년부터,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전국여성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 여성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열망을 표출하고, 연대를 공고히 하는 행동과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8 세계여성의 날’, 2009년 제25회 한국여성대회는 전국 17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3:00

17:00

시민난장

* 먼저 도착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1. 안내센터 : 자료집 및 기념품 배포 등을 위한 안내데스크
2. 여성, 희망의 바람 : 참가자들의 재미있는 만들기 프로그램
- 3·8 여성행동 '야단법석' 장식용품을 직접 만들어요~
3. 드림서클 : 점베 배우기
4.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시민난장 : 물품 판매 및 각 단체 홍보 부스

14:00

15:00

기념식

* 사회 : 권혜화(여성연합 홍보대사, 배우, 희곡가전문사회자)

1. 주최 : 2009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5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2. 주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3. 장소 : 청계광장
4. 내용
 - 개막 퍼포먼스 : 드림서클 (점베 퍼포먼스)
 - 인사말 : 남윤인순 ·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축사 : 한명숙 37대 국무총리
 - 참가자 소개
 - 축하 : 이정미(재일동포 가수)
 -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및 수상자 소감발표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선언과 퍼포먼스
 - 축하공연 : 김산애(가수)

15:00

17:00

3·8여성행동 '야단법석' · 마무리 행사

1. 3·8 여성행동 '야단법석'
 - 각계 각층의 자가요구를 드러낸 다양한 그룹, 풍물패, 복색한 참가자로 구성된 행진
 - 행진거점을 정해 놓고 거점마다 퍼포먼스 진행
2. 퍼레이드 코스 : 청계천 모전교—국가인권위길—시청 앞—프레스센터—청계광장
3. 마무리 행사
 - 퍼레이드 맞이 퍼포먼스
 - 우리들의 힘찬 구호와 함성
 - 전체 퍼포먼스 : 점베와 풍물이 함께하는 길놀이
 - 여성희망 한미당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질주하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추락하는 역사적 순간에 서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한가?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아동복지예산 삭감 등 반 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4대강 정비사업, 무분별한 뉴타운 확대, 중부세 폐지 등 소수 특권층 사회를 만들기 위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세력의 싹을 없애기 위해 언론통제, 인터넷 감시, 집회시위 규제, 시민사회단체 옥죄기 등 공권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는 한참 거꾸로 돌아와 있다.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가 가중되는 위험사회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벌어진 여성 연쇄살인 사건, 급증하는 여성폭력,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해고 증가 등 여성의 삶의 질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오늘 제25회 한국여성대회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는, 최악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업이나 경제파탄으로 절망하는 서민들, 사교육비와 교육양극화에 신음하는 학부모들, 차별과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괜찮은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라!

정부 지원을 한 톨도 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이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연봉 2,000만원짜리 '괜찮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야 한다. 특히 가사, 보육, 교육, 장기요양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면 가족돌봄을 사회화하고 여성일자리도 늘리는 쌍둥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임시적이고 근로조건이 낮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을 월 170만원(2008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으로 높이고,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 변화와 집중적 재정투자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부자감세 중단하고 교육복지 예산 확대하라.

학교 서열화 정책과 영어 광풍 등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켜 온 이명박 정부는 지방재정으로 배분되던 8조원의 중부세를 폐지하고 4조원에 달하는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이 줄어들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삭감, 무상아동급식 축소, 보육시설 지원 삭감 등 지자체의 아동복지와 교육 예산이 줄고 있다.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아동의 권리마저 빼앗는 정부는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가 교육양극화를 최소화하고 돈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자감세 대신 국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보하고, 영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과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 인하 등 대학교육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 정치의 모습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억압하는 독재시대로 회귀한 듯하다. 민주적 절차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회에서는 의회민주주의조차 실종되어 언론의 독점을 허용하는 언론악법, 휴대폰 감청, 집회시위 규제, 사이버모욕죄, 시민단체 규제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들이 한나라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18대 국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를 정지시켰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반민주·반인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효율과 권위만을 내세우는 비민주적 문화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는 무시되기 쉽다. 초미니 부서로 여성부를 전락시킨 현 정부의 초라한 여성인권의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가 끊임없이 도를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민간과의 수평적 협력관계 확립,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인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하여 서민경제 살려내라!
- 비정규노동 사용기간 확대, 최저임금 삭감 반대한다!
- 임신·출산 여성우선해고 금지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라!
- 아동은 우리의 미래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보육예산 증액하라!
- 학교 서열화, 사교육비 부담 가중시키는 교육양극화 정책 중단하라!
- 0세부터 18세까지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하라!
- 실종된 성평등 정책 살려내고 여성인권정책 강화하라!
- 세계적 망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반대한다.
- 언론악법, 경제악법, 인권악법 즉각 중단하라!



지역·단체별 행사안내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경기지역 행사

- 행사명: "학교교육, 새로운 행복을 꿈꾸다" (가칭)
- 일시: 2009년 3월 27일(금) 오후3시~6시
- 장소: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
- 주최: 경기지역 내 여성단체, 시민단체 공동주최(예정)
- 프로그램
 - 사전행사: 전시 / 참여프로그램
 - 1부: 경기도 교육감선거 후보초청 토론회
 - 2부: 축제미당(연대와 소통) / 경기여성선언문(가칭) 발표
 - 실천 캠페인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경남 여성대회

- 행사명: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경남여성대회 "3·8여성, 희망 달다"
- 일시: 2009년 3월 7일(토) 오후2시~5시
- 장소: 창원 정우상가 앞
- 주최: 2009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경남여성대회 조직위원회 (경남 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전보연합여성위원회, 경남여성연대, 민주노동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경남지부)
- 프로그램
 - 기념식: 대회사 / 격려사 / 축사
 - 퍼레이드: 정우상가 → 시청로터리 → 정우상가
 - 개사곡 경연대회, 축하공연
 - 퍼포먼스: 3·8을 상징하는 38M의 가래떡으로 여성 역할을 표현하고 굽기
 - 부대행사: 시민 참여, 체험부스 설치

3·8세계여성의날 101년 기념 광주여성대회

- 일시: 2009년 3월 7일(토) 오후2시~5시
- 장소: 금남로(삼복서점 앞) / 우천시 지하상가
- 슬로건: 여성이 만들어오,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 주요내용: 관측은 일자리 창출과 보장 / 여성빈곤 가속화하는 MB악법 지지 / 교육복지 확대 - 부자 강제 반대 / 민주수호 - 여성인권 보장
- 참여단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본부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광주여성위원회, 광주여성회(준), 광주여성센터, 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
- 프로그램
 - 사전 행사: 참가 단체 공연 / 길놀이 / 퍼포먼스 등
 - 부대행사: 의자 캠페인, MB악법 F4 레드카드 홍보전, 홍보 부스 / 시민 참여독려 이벤트
 - 본행사: 여성의례 / 함께하는 이 소개 / 대회사 / 축사 / 3·8상 시상 / 문화공연 / 여성발언 / 춤 세레피 / 여성선언 / 거리 퍼레이드
 - 시민참여 행사: 생활 속 차별 극복사례 시민 공모 / '3·8여성' 4행시 / 민생 민주를 위한 3up, 3down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6차 대구여성대회

- 일시: 2009년 3월 6일(금) 오후5시
- 장소: 2,28기념중앙공원 일대
- 프로그램
 - 사전행사: 나의 마음은 지지 않는다 상영회 3/4, 대구여성미디어센터 세션,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구명운동선포식, 대구여성회 반성애(反性愛)인, 사전부스 등
 - 문화공연: 풍물공연 대구여성회 위풍당당 / 대구여성회 춤 공연 / 당사자 발언(학부모, 인권, 노동) / 대구여성의전화 노가바 공연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연극 / 여성선언문 발표 / 대구 성평등디딤돌, 걸림돌상 수여식
 - 연대단체: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주부아카데미, 미합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반미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진보신당, 민주노동, 진보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3·8 여성의 날 101주년기념 한국여성대회 대전지역행사

- 일시: 2009년 3월 7일(토) 오후2시~5시
- 장소: 대전 중구청 우리들 공원,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곳곳
- 연대단체: 시단법인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여성노동대전충청지부, 민주노동대전충청본부, 진보신당대전시당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대전시당여성위원회, 대전1366, 대전여성인권지원상담소 '노티나무', 구세군청다온집, 대전위계청소년교육센터, 우리청소녀협자리, 대전아름다운가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충청지부, 대전여성폭력방지협의체시설 - 상담소협의회
- 프로그램
 - 사전행사: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최저임금·비정규직법 관련 전시물, 3·8세계여성의날·성평등디딤돌·걸림돌 전시물, 용산참사, 성매매관련 전시부스, 참여프로그램 등
 - 기념식 및 공연: 개막공연(사물놀이, 비트박스, 타악기) / 대회사 / 참가단체 소개, 내빈소개 / 3·8여성선언 / 3·8축하메세지 & 여성실천메세지 / 축하공연 (노래패, 댄스, 밴드공연) / 여성의 날의 염원을 담은 비행기 날리기
 - 3·8여성행동: 학자지킴, 난리법석 퍼레이드 (가칭): 우리들공원 → 성심당 →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퍼포먼스 → 이인경원 - 중부경찰서 → 우리들공원

2009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부산여성대회

- 일시: 2009년 3월 7일(토) 오후3시~5시
- 장소: 서면 일리오레 아외무대
- 슬로건: 여성이 만들어오,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부산!
- 5대 과제: 관측은 여성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차별 없는 노동! 부자강제반대, 지역복지확대! 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보장! 6.15선언·10.4선언 이행!
- 주관: 부산여성단체연합
- 주최: 2009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부산여성대회 준비위원회(부산여성단체연합,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동래생협, 푸른바다생협, 통일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부산지부, 민주노동)
- 프로그램
 - 기념식: 대회사 / 축하공연 2팀 / 5대 과제 선포
 - 거리행진: 일리오레 → 부산은행 → 태화 앞 → 전자랜드 → 일리오레
 - 마무리 행사 및 참가자 전체 퍼포먼스
 - 부대행사: 각 단체별 다양한 내용으로 부스 운영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울산여성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9년 3월 7일(토) 오후2시 / 롯데백화점 야외무대(예정)
- 슬로건 : MB정부, 여성을 웃게 하라!
- 참가단체 :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전화, 시각장애인여성회, 상담소시설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지부, 민주노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사회당
- 프로그램
 - 기념식 : 열아라 여성세상(여성타악공연) / 개회선언 / 대회사 / 여성들의 안전한 발걸음 만들기 협약식 / 축하공연(청소년 춤공연) / 효성 국공연 및 발언 / 여성선언문 낭독
 - 행진 및 마무리행사 : 롯데백화점 - 현대해상사거리 - 롯데백화점(단체별 퍼포먼스 등)
 - 주변전사, 시민참여마당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주지역 행사

- 행사명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및 사진공모전시회 '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희망을 말한다'
- 일시 : 2009년 3월 6일(금) 오후 7시
- 장소 : 신산갤러리 (영성미디어센터 내)
- 주최 : 제주여성회
- 프로그램
 - 개막식 : 장애인사물놀이 '큰 울림' / 2009 여성희망선언 / 영상물 상영 '희망을 말한다' / 퍼포먼스 '꽃보다 여자' / 사진공모 수상작 시상 / 축하무대(오케리나 공연,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들레학교)
 - 공모사진전시회 "꿈꾸는 카메라, 희망을 말한다." (3.8-3.13, 신산갤러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8충남여성대회

- 일시 : 2009년 3월 8일(일)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참가단체 : 천안여성회(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천안여성회전화, 민주노동당충남도당, 민주노동충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 평등교육학부모회천안지부, 세상을날고싶은연, 익새들, 사회당충남도당, 진보신당충남도당, 소리여울, 천안지역자활센터, 공무원노동조합충남본부, jooop천안소비자생협
- 프로그램 : 1부(여성대회) / 2부(가족과 함께 걷기대회) / 부대행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충북여성대회

- 일시 : 2009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청주YWCA 강당
- 참가단체 : 충북여성연대(YWCA), 청주여성회전화, 성매매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 프로그램
 - 식전행사 : 여성연대 투쟁가금 마련을 위한 장미꽃 판매 / 각 단체 홍보부스
 - 1부 : 개회선언 / 대회사 / 축사 / 충북여성연대 활동영상보고 / 충북여성선언문 발표
 - 2부 : 소박한 먹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놀이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포항 행사

- 일시 : 2009년 3월 8일(일) 오후1시30분
- 장소 : 월포 포스코 수련관 앞 응두산
- 슬로건 : 건강한 여성, 건강한 여성 운동
- 프로그램 : 등산, 건강한 여성운동을 위한 소망적가, 3·8세계여성의 날 관련 O × 퀴즈 등
- 주관 : 포항여성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토론회

- 주제 : '경제위기를 넘어설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 2009년 3월 3일(화) 오후2시-5시
-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2
- 주최 : 여성노동연대회의(민주노동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예정)
 -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공동대표
 - 발제1 :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법 개악이 경제위기의 해법인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발제2 : 경제위기를 넘어설 정책은 무엇인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책 등 국외 정책을 중심으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 여성 국회의원 / 여성노동 관련 연구자 / 노동부 근로기준국 관계자 / 여성단체 등

독일 괴팅겐(Goettingen)시 세계여성의 날 행사 중

"한국여성의 삶과 인권"

- 일시 : 2009년 3월 7일(토) 저녁 7시
- 장소 : 독일 괴팅겐(Goettingen)시 Haus der Kulturen
- 프로그램 : "세계의 여성과 문화"를 주제로 독일, 한국, 터키, 이집트, 핀란드의 여성과 인권, 문화 소개하는 행사 중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 짧은 강연 : "한국여성의 삶과 인권"
- 한풀이춤, 부채춤 및 전통음악 소개
- 행사 주최 : 괴팅겐의 여성단체들
- 한국 소개 프로그램 담당자 : 송은실(ewig2002@hotmail.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855차 정기수요시위

- 일시 : 2009년 3월 4일(수) 낮12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주관 : 한국장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프로그램 : 개회사 / 문화공연 / 연대발언 / 생존자발언 / 성명서낭독 / 공동퍼포먼스 등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착공식 '희망의 터 다지기'

- 일시 : 2009년 3월 8일(일) 오전11시-오후1시
- 장소 : 서대문 독립공원 매점1호 부지(주차장 옆)
- 주관 : 한국장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프로그램 : 경과보고 / 간혹개요 보고 / 축하인사 / 문화공연 / 열린마당 등

전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

간접고용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적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발

“저희는 큰 욕심도 없습니다” 내 일자리에서 안심하며 일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몇 년 동안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한 직원을 대량해고 했습니다. 용역 강패를 고용해 내쫓으려 했고 저희를 폭행했습니다. 연대 온 동지들이 막아주자 다음번엔 ‘징역가도 상관없는 강패’ 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 뉴코아 조합원

이랜드 그룹은 2006년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이랜드일반노조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첫 해고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홈에버에서 350여명, 뉴코아에서 300여명, 홈에버 주차, 보안, 카트 용역시설직원 500여 명 총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2년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이랜드 그룹이 비정규직법을 피해가고자 대량 해고를 자행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랜드는 계약해지를 쉽게 하기 위해 6개월, 3개월, 심지어 0개월짜리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조작하거나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두는 백지계약을 내미는 등 편법적인 행위를 해왔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만 골라서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과도 같은 자신들의 처지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들을 510일간의 투쟁으로 몰고 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10일간의 끈기와 열정의 승리

이랜드사의 까르푸 인수 이후 더욱 심해진 비정규직차별, 여성차별, 높은 노동 강도, 노동조건의 악화를 견디다 못해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차별시정을 내 걸고 노동부 집계 상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510일간의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었다. 각종 생활고와 생계문제,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여성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끈기와 열정으로 마침내 승리한 전 이랜드 노동조합원들은 여성노동자와 노동조합들에 희망의 길잡이가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애환을 대변한 투쟁

이랜드그룹이 소위 비정규보호법 시행을 앞둔 2007년 상반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대량해고 및 외주화를 강행하는 것에 맞서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는 공동으로 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특히 이랜드가 대량 해고한 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계산원 업무가 해고와 외주화의 일순위가 되었다. 홈에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80여만원의 박봉을 감수하며 일해 온 여성들로 이랜드그룹의 일방적인 생존권 박탈에 노조를 중심으로 저항하였으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등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권리 침해 등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활동은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유통사업장의 열악한 조건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으며,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애환을 대변하는 상징적 투쟁이 되었다.

투쟁에 승리함으로써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전 이랜드 노동조합이 510일간 투쟁을 끝으로 일터에 복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첫째, 홈플러스가 추가 외주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고용 확산을 막고 유동업 전반의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둘째, 계약직으로 16개월을 경과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얻어냈다. 셋째, 공휴일 유급인정과 소폭 임금인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최소화했다.

제 세력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이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희망의 시금석

이랜드 투쟁은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저항, 이에 함께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그리고 이들의 투쟁에 함께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어우러진 연대의 장을 만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이랜드는 노동운동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나쁜 기업에 대한 소비자 주권을 호소하는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범망미저 빠져나갈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본의 횡포가 심각해지는 지금, 전 이랜드 노동조합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의 가능성을 가늠 할 시금석으로, 정부의 외면과 기업의 탄압을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투쟁사례이다.



참고 <단체 연혁 및 투쟁경과>

- 1997. 4 한국까르푸노동조합
- 2006.12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까르푸노동조합, 이랜드노동조합 통합)
- 2007. 6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홈에버 지부
- 2007. 5 뉴코아 350여명 계약해지 및 립스클럽 비정규직 캐셔 전원 강제유역전환(80명) 외 27명 전원해지, 이랜드 350여명 전원해지 해고됨
- 2007. 6 이랜드 노조 1-4차 공동파업, 홈에버 상암월드컵점 5시간 동안 영업 중단
- 2007. 7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발족 및 불매운동 선언(57개 여성·시민단체)
- 2008. 8 여성 소비자 이랜드 불매 전국점매인 선포문화제 개최
- 2008.11 한국노동부역사 최장기 510일 파업
- 2008.12 홈플러스테스코 노동조합명칭변경, 이랜드 일반노조 분리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성이 주체가 된 농업과 환경, 지역을 살리는 활동

1989년 창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통한 농업·환경, 지역을 살리는 활동들을 펼쳐왔다. 생산자·소비자의 신뢰구축, 친환경농산물 홍보 사업,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 사업, 친환경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소비자 교육,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위한 정책제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결과로 창립초기의 '생활재'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재료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생활재'로 명명)는 쌀·유정란·두부·콩나물 등 50종에 불과했던 품종이 2006년 현재 1,500여종으로 확대되었고, 220세대로 시작한 조합원도 20,000세대로 늘어났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위험한 먹을거리와 환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인 GMO 대응활동, 쌀 소비 확대 활동, 수입유기식품 대응활동, 재사용병 사용 확대 활동, 논습지 활동, 광우병 쇠고기 반대활동, 지구온난화 대응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은 개인이 사 먹고 건강하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생각을,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는 환경도 살리고, 생산자와의 교류를 통해 생산을 지속시킬 수도 있다는 공동체 활동으로 인식시킬 수 있었다. 친환경농산물 이용으로 환경과 농업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대중인식개선과 확산으로 조합원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과 한우 전수조사 주도적 역할

2008년 5월부터 진행된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적극참여 하여 어린이집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식 등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반대에 대한 생활 운동을 이끌어 냈다. 쇠고기 생산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인 전수검사를 미국산에 요구하는 것과 같이 국내산에도 적용시키는 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풀뿌리여성조직 강화에 기여

2004년부터 지역에 생협 활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 생협으로 분리하는 논의를 시작, 2007년부터 고양여성민우회 생협, 남서여성민우회 생협, 동북여성민우회 생협 등 단위 생협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여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지체와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등 지역현안을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을모임, 지역모임을 만들어 활동의 깊이를 가질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2008년에는 총 72회, 434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생활재 요리, 천연화장품만들기, 면생리대 만들기, 아이들 교육 등에 관한 토론, 성교육 등의 강좌를 진행 하는 등 지역여성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며 풀뿌리 여성조직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여성들의 글로벌리더십 향상에 기여

아시아자매회의(대만, 일본, 한국의 협동조합)를 년 1회 개최하여 아시아 여성 생협인들의 활동을 교류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2002년에는 아시아 여성들의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분석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아시아 여성연대 활동은 풀뿌리지역 여성들에게 기회가 없던 국제연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성생산자와의 연대

친환경농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생산자들이 생산자·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평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성생산자·소비자교류회'를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처지의 여성들이 연대를 통해 상호 소통하고 지지하며 경쟁과 배제가 아닌 신뢰와 돌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생산·소비활동,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주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



참고 <단체 연혁>

- 1989.12 창립총회(조합원 220세대, 출자금 1,300만원)
- 1998.11 삼월여성가장 겨울나기 벌금급
- 1999. 6 친환경농산물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유전자조작 안된 음식 먹기 캠페인
- 1999.11 GMO 농산물 및 식품의 표시제에 대한 토론회
- 2000. 7 생활 법안 창립총회
- 2003. 8 제1차 여성생산자·소비자 교류회
- 2005.11 아시아 자매회의 개최
- 2006. 3 미국산 광우병 의심되는 쇠고기 수입반대 캠페인
- 2006. 9 한미 FTA 소비자 대책위 활동
- 2007.12 생물다양성을 살린 유기농사와 습지생태계로서의 논 가치 알리기 위한 간담회
- 2008. 5 여성인우회 성립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광우병안전지대 선언식
- 2008. 8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군내 스토킹 사건 진상규명에 성공한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2007년 2월부터 9월경까지 “사단 본부대장이 직속 부하인 여군 장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직권권리남용 등에 이유를 들어 한병대에 피해자를 먼저 고발하였고, 피해자 역시 숨기고 있던 스토킹 사실을 부대에 알리고 가해자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군 재판부는 가해자와 가해자 측근의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동대책위(한국성폭력상담소 외 13개 단체)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억고소 사건을 맡아 공동변호인단(김수정, 김인숙, 원민경, 임선영, 임종인, 장서연, 차해령, 황정화)을 조직하고, 피해자의 무죄 입증에 대한 대응활동을 벌였으며, 2008년 7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11월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얻어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사 주간지 등에 군내 여성장교가 겪는 성폭력 문제가 심도 깊게 취재되었으며, 군내 인권피해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다루어졌다.

친권 자동부활 문제에 맞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지킨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조OO 친권반대 카페



배우 최진실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친권 자동부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단 한번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과 인터넷 카페 '조OO 친권반대카페'는 친권자동부활문제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를 진행 해 자동친권부활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켰으며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했다.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해고 조치 정당성 인정 판결 내린 안대희, 김영란, 이흥훈 대법관

이 사건의 가해자는 금융권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장기간 다수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을 일삼아왔다. 이 사건이 사측에 알려지자 심사를 거쳐 가해자는 해고되었다. 이후 가해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고등법원에서는 '가해

자의 행위가 의도적이기 보다 우발적이었고, 피해여성 중 일부는 성희롱이러기보다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며 부당하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제3부(대법관 안대희, 김영란, 이흥훈)은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상사인 가해자의 행위에 대응하기 힘들었을 수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점'에 이유를 들어 2심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은 성희롱 가해자인 근로자가 직장내 함께 존재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권 박탈이라는 원인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파견법 판례 바뀌 수 많은 불법파견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지킨 이경수, 김미주 씨

이들은 2000년 4월 극동도시가스(현 에스코)의 입사동기이며 고객지원센터 창구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각종 질의나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6년여의 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처리했지만 파견, 업무도급, 직접고용으로 다른 고용조건에서 일했다. 그러나



2005년 10월 25일 회사는 이경수, 김미주씨를 포함한 7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고 이에 반발하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유하려 했다. 그러나 이경수, 김미주 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3년여의 법정 싸움을 지속해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한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불법 파견에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 지난해 11월 에스코에 복귀해 수 많은 불법 파견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좋은 판례를 남겼다.

광우병 위험 미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이끈 '촛불 여성들'



문제로 연결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참여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여 촛불시위를 처음 시작한 여학생들,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내 아이만의 안전이 아닌 우리 사회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촛불시위를 지킨 유모차 부대 엄마들, 네티즌들이 광우병 위험 소고기에 대해 잘 알도록 웹에서 광우병 미 소고기 반대 모임을 만들어 적극 활동하고 이를 오프라인 활동으로 연결하여 촛불시위를 만들고 주도한 촛불여성들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지적장애 아동을 장기간 성폭력 한 친족 일가에 피해아동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



10대 지적장애 아들에 8년 동안 성폭력을 행사한 친족일가(친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등)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의 양육을 도맡아 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나이도 많고 충분히 반성한다'는 이유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친족성폭력,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특성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결일 뿐 아니라, 아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차단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반인권적 판결로 여성장애인 인권향상에 걸림돌이 되었다.

벼룩의 간을 내 먹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의결기간내 최저임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

원이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으려는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자 189만명(11.9%) 가운데 64.4%가 여성이다. 또한 많은 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조차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사하고 감액할 공리만 하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성평등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유모차 부대의 촛불시위를 폄하하고
왜곡한 한나라당 장재원, 이범래 의원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시위에 함께한 일명 '유모차 부대'는 공권력과 보수언론의 타격이 되어 '모성을 저버렸다' '아동을 학대했다' 등의 악의적인 비난과 탄압을 받았다. 이 중 한나라당 장재원 의원과 이범래 의원은 의회의 공식적인 질의과정에서 아동학대 운운 하는 패륜적 발언으로 유모차 부대 여성들의 행동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유모차부대 여성들은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그것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것이다. 국민건강권을 지켜주기 않는 정부에 항의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평화적으로 거리에 나왔을 뿐이다. 이러한 유모차부대 여성들에게 자녀를 학대하는 반인륜적 모성애를 갖고 있다는 막말로 여성들의 정당하고 자발적인 실천행동을 왜곡시키고 폄하한 한나라당 장재원, 이범래 의원은 이 들뿐 아니라 여성모두를 모욕했다.

출연진 및 스태프 소개



사회 권해효
(배우, 여성연합 홍보대사)



사회 최광기
(방송인, 전문사회자)



퍼포먼스 성공회대 풍물패 '탈'



축하공연 강산애
(가수)



축하공연 이정미
(재일동포 가수)



퍼포먼스 드럼서클

• 연출자문_유수훈(숨 엔터테인먼트 대표)

• 기획_김미란(여성연합 조직부장)

기획위원_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현정(한국여성민우회), 키라(한국성폭력상담소),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홍보_유일영(여성연합 활동가)

• 총진행_김금옥(여성연합 사무처장)

조직팀_김은희(운영국장), 조이현임(활동가), 정윤희(인턴활동가), 최초로(인턴활동가)
정책홍보팀_이구경숙(정책국장), 김현애(활동가), 한황주연(활동가)

• 무대 및 음향_마당

• 영상촬영_칼라TV 조대회PD

• 디자인_새터

• 자원활동가

강소현	김경아	김고운	김구수진	김나래	김민주	김민지	김수정	김애진
김언우	김은영	김은정	김인화	김장림	김정은	김지수	두루미	문정진
민승리	박경은	박라군	박미화	박소진	박우성	박정은	박정화	박지안
박초롱	박혜민	배한진	살롱프	송진희	신나래	신유정	신유진	심시영
안신영	어진아	임세연	오희주	유디양	이소할	이수연	이슬비	이아람
이아름	이안나	이애린	이은혜	이정은	이지현	이혜수	이현주	임계윤
장은별	전미영	전지윤	전효민	정아현	정운재	정희운	조지형	최고은
최주현	최진주	최진희	최소영	현지아	홍지아	황은정		



축하나눔 · 감사인사 환희 ART 와 함께하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별 문화나눔 연극 '대화가 필요해' (환희소극장 / 3월 8일(일) 오후5시 / 9일(월) 오후8시 / 10일(화) 오후8시)

제25회 한국어성대회,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품협찬 공동제작 / 연출 숨엔터테인먼트 / 영상촬영 및 생중계 칼라 TV / 수화통역 청음회관 / 다음기획 / 축하공연 강산애 이정미 / 한국소비자과워센터 대구광역시지부

행사명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5회 한국여성대회
일시	2009년 3월 8일(일) 오후 1시~5시
장소	청계광장
주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나다순)
주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5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제여성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주),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한울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 푸른꿈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그린책밀리 그린스카우트연합, 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살림여성회, 기독교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내일을여는것진여성,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 성매매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너른마당', 대전여민회 '노티나무',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학자협의회, 독도수호대,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문화미래이프,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미식고기군납반대모임,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불교여성개발원, 불교환경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지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수원여성회, 시각장애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양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서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울산여성회 동구지부,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 울산여성회 중구지부, 원불교중앙청년회,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지립지공공동체,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한부모네트워크(준), 전남여성농민총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불턱', 제주여성인권연대 '해남',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각장애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로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건강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지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을지키는여성회, 환경정의

(총 177개 단체 / 가나다순)

제25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합니다. 여성들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입니다.

37대 국무총리 한명숙

제25회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활동에
범무법인 원이 함께합니다.

대표변호사 윤기원, 김인진

제25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여성들이
삶을 지키고 인권신장의 견실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인권옹호자로서 많이 활동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25회 한국여성대회의 힘으로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화~이~팅!!


환경재단
KOREA GREEN FOUNDATION
대표 최 열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원장 김태현

여성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결의가 새롭게
다져지는
3·8여성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21세기여성포럼

제2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상금을 후원해주신 분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대표자 및 여성계인사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수상자들의 모범적인 활동이 각계각층을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상금을 마련했습니다.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강인순 경남대학교 교수
강은숙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경희 대전여민회 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영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순 대구여성회 대표
김옥연 기독교여민회 지도위원
김은경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소장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윤민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명화 수원여성회 대표
명진숙 한국여성재단 기획사업 팀장
박노숙 오정사회복지관 관장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전)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제 5회 올해의여성운동상 수상자)
박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옥희 21세기 여성포럼 공동대표
박주현 시민경제연구소장
박효숙 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제18회 올해의여성운동상 수상자)
배월수 전)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신필균 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안이정선 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
염미봉 광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쉼터 소장
유일영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윤경희 포항여성회 회장
윤금주 수원여성회 부설 평동어린이집 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경숙 17대 국회의원
이경옥 경남여성회 회장
이기원 전)수원여성회 대표
이덕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승렬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대표이사
이승은 함께하는 주부모임 전회장
이윤애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
이철순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원장
장영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장순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장운경 갈등경영연구소 소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전숙희 전)대전여민회 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장
정양희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교육개발팀장
정인경 광주경신중학교 교사
정종미 사업가
정종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정태호 기독교여민회 회장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영숙 전)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현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은희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옥자 전)수원여성회 대표
한황주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대안사회를 향한 여성연합 비전선언문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더불어 함께 창조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우리는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과정과 방법에서 다양성과 차이, 내부 민주주의와 사람을 중시하는 성찰적 진보를 지향한다.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더불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여 서로에 대한 믿음 속에서 힘 있는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나아가 상호 배려와 자매애 속에서 다양성과 차이가 내부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고 창조성으로 피어나는 운동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또한 활동가들이 운동 속에서 비전을 찾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동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여성운동의 지역화와 생활화를 위해, 풀뿌리 방식과 자발적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생활세계는 성평등 가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최초의 지점이자 최종 목표점이다. 또한 여성세력화의 기본 단위로서 성차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현장이자 대안을 창조할 수 있는 희망이다. 우리는 풀뿌리 여성들을 주체로 그들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으며 실천하는 생활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여성을 차별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고, 돌봄과 나눔의 대안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무한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는 사회 형평성과 공공성, 사회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하며, 동시에 돌봄과 나눔의 생활공동체가 살아있는 대안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한다.

상생과 평화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평화를 통한 통일'을 실천한다.

우리는 전쟁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여성교류, 평화 문화 확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평화형성자와 화해자로서 통일과정에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여성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을 전개한다.

양극화 사회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노동권, 인권, 복지가 보장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한다.

평등·평화·생태·다양성·배려·투명성의 가치를 실천, 확산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든다.

난개발로 인한 생태 파괴,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 물질적 이기주의, 권력층의 부패, 타자에 대한 배려 부족, 다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 등 아직도 우리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대안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면서 정치사회와 시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자로서 역할을 높여낸다. 우리는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이 주체가 되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는 대안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8년 1월 9일 22차 여성연합 정기총회에서



JINRO

소주가 최고다 참이슬이 힘이다

더 힘찬 대한민국을 위하여!

깨끗하고 깔끔한 소주



CJ 홈쇼핑 베스트 서비스



이 히든카드를 숙지하시면
똑같은 쇼핑을 하면서도
남다른 서비스를 받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접하는 히든카드 사용방법



1. TV홈쇼핑에서 최신 유행 트렌드 상품을 시청한다
2. 너무 비싸다면 CJmall 쇼핑방송국에서 주간 트렌드 뉴스 VOD를 본다
3. 방송을 보면서 코드, 인테리어 등 상품활용 정보를 얻는다
4. CJmall의 상상탐험대에서 신상품 무료체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체험해본다

CJ 홈쇼핑 베스트 서비스

No. 5 쇼핑방송국 서비스

재미있는 동영상들과 함께 최신 트렌드뿐만 아니라 상품활용정보까지 챙기는 쇼핑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No. 9 발빠른 글로벌 쇼핑서비스

유명브랜드의 신상품을 무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잡으세요
(CJmall 작수입 명품관 / 해외 구매대행서비스 HUB)

적립금을 쌓고 또 쌓는 히든카드 사용방법



1. CJmall에서 보내온 메일을 연다
2. 내 스타일을 꼭 짚는 신상품 정보에 감동한다
3. 신상품도 챙기고 캔디랑, 적립금도 쌓는다
4. The CJ 카드로 2% 추가 적립금까지 챙긴 후, 상품평 쓰고 캔디랑 적립금을 또 모은다

CJ 홈쇼핑 베스트 서비스

No. 16 쇼윈도우 서비스

나만을 위한 추천기획전, 추천부품, 기념일 알람 서비스부터 쇼핑캘린더까지 맞춤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No. 2 CJmall 캔디 서비스

상품 구매할 때마다 받았던 적립금을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모아두었던 캔디로는 각종 생필품을 교환하세요

사은품을 받고 또 받는 히든카드 사용방법



1. 다양한 상품들을 모아둔 CJ카드로그를 정기구독한다
2. 틈틈히 차근차근 읽어가며 필요한 상품을 체크한다
3. 저렴한 가격으로 추가구성까지 챙긴다
4. 아왕이면 빨리 구매해서 선착순 사은품 챙기고 한꺼번에 구매해서 구매금액별 사은품까지 챙긴다

CJ 홈쇼핑 베스트 서비스

No. 21 특별사은품 서비스

CJ카드로그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특별 사은품을 드립니다

No. 22 특별추가구성 서비스

CJ카드로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추가구성 혜택을 받으세요
The CJ 카드로 결제하시고 3% 추가 적립금도 받아주세요

우리는 어린이의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작은 생각을 크게 키워 주는 일 -
바로 이 나라의 교육이 우리 아이가 살아갈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웅진씽크빅은 '아름다운가게' 후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도서지원, '웅진씽크빅아트홀' 운영, 결식아동 후원, 백혈병 소아암 환자 및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습지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 가고 있습니다.



주름이 한줄 한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깊은 주름부터 보이지 않는 노화의 징후까지
주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끝에 아이오페는 주름을 생성시키고
심화시키는 존재인 신경세포에 주목했습니다. 레티놀NX™는
레티놀과 NX Complex™로 신경성장인자(NGF)를 활성화시켜
깊은 주름은 물론 잠재 주름까지 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여성의 파우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아이오페 피부 과학입니다.

아이오페 레티놀NX™

IOPE



레티놀NX™ 고객감사
[10,000포인트 이벤트 ▶ 2009년 3월 1일~3월 31일]

광고 화면에 있는 쿠폰을 아래따옴에 가져오시면 ● 레티놀NX™ 3회 체험키트를 (1인 1회 / 한정수량) ● 레티놀NX™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10,000포인트를 드립니다.

• 고객상담실 080-023-5454 www.iope.co.kr



My Beauty Solution
ARITAUM
www.aritaum.com

레티놀NX™는 아래따옴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페 레티놀NX™
3회 체험키트 쿠폰
(1인 1회 / 한정수량)

송도해수피아

SONG DO HAESOOPIA

사우나, 찜질방, 헬스클럽

1,100m 해양 심층수와
부산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송도해수피아
탁! 트인 전망과 바다가 전면에 펼쳐져 있고
건강을 위한 헬스클럽, 한방 건강 맛사지테라피,
각종 모임을 위한 비지니스렌탈룸등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당신만을 위한 Well-being을 드립니다!

송도해수피아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
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
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하
고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성평등도서관여기 기록하
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 6F 한방 건강 마사지 테라피
비지니스 레스트룸
- 5F 초대형 찜질방 보석방
소금방/자갈방/황토방/참숯금방
- 4F 여성 해수 사우나
- 3F 남성 해수 사우나
이용실
- 2F 휘트니스클럽/GX룸
리셉션홀/로비
- 지상 1F~지하 1F 주차장

가워졌습니다. 영선아랫로타리에서 5분 이내

www.songdohaesupia.com



명태의 숲...

"예전엔 그물이 찢어져라 잡았는데, 작년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느 명태잡이 어부의 말처럼 12만톤의 명태 어획량을 기록하던
대한민국이 작년엔 0톤을 기록했습니다.
CO₂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내 이웃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명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유한김벌리

**지구온난화의 주범 CO₂를 없애는 가장 푸른 방법
바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유한김벌리는 지난 25년 간 학교숲 만들기, 국공유지 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 북한 산림함제지 북구, 동북아 사막화방지 숲 조성, 신혼부부 나무심기, 청소년 숲체험교육, 우리숲 웹사이트 등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숲의 소중함을 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